

남 북 협 력 동 향

(2004.6.21 ~ 9.30)

■ 한국수출입은행,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6.25)

- 한국수출입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
 - 2004년도 청산결제한도 : 미화 3천만 달러 범위내
 - 신용한도 : 15%, 이자율 : 연 1%
 - 미결제 연말차액 및 이자 : 2005년 3월 31일까지 현금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로 청산

■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출범(6.29)

- 개성공단 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출범
 - 창설준비위는 관리기관 구성 및 사업준칙 제정, 현지공단 관리 등을 담당하며 관리기관 설립전까지 관리기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
 - 개성공단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위해 남한이 설립하는 법인으로 기업의 설립 승인·등록, 건설허가·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등록,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등을 담당

■ 정부,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제정,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및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7.8)

	제·개정전	제·개정후
방 북 승 인 처 리 기 한	20일	10일
수시방북승인자 신고기한	방문 7일전	방문 4일전
협 력 사 업 승 인 처 리 기 한	30일	15일
신 청 서 류	11종	2종(협력사업(자)신청서, 기업창설신청서 사본)

	제·개정전	제·개정후
신 변 안 전 보 증 서 류	방문승인 신청시 첨부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발효시 폐지
수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향후 1년 6개월간의 방문증명예 정서’ 제출	방문증명예정서 폐지
방 북 증 명 서	매 귀환시마다 반납	증명서 유효기간내 계속 소지

■ 상반기 남북교역, 전년동기 대비 21.0% 증가

- 올해 상반기 중 남북교역액은 32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0% 증가(7.15, 통일부)
 - 반입액은 116백만 달러(3.5% 증가), 반출액은 209백만 달러(33.5% 증가)이며 비거래성 교역(176백만 달러, 38.7% 증가)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83백만 달러 흑자
 - 남북교역 업체는 333개(위탁가공업체 84개), 품목수는 491개(위탁가공교역 품목 163개)
- 남북교역의 증가는 거래성 교역의 꾸준한 증가(149백만 달러, 5.1% 증가)와 용천구호 물자 등 인도물자 지원과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제공에 기인

■ 상반기 남북한간 선박운항 및 해상물동량 전년동기 대비 14.7%, 31.6% 증가

- 올해 상반기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 937회로 전년동기 대비 14.7% 증가하였고, 물동량은 400,367톤으로 31.6% 증가(7.15, 통일부)
- 선박운항 횟수 증가는 수산물 반입을 비롯한 거래성 교역의 증가에 기인하고, 물동량 증가는 대북 비료지원과 아연괴, 바다모래 반입 증가에 기인

■ 대북 쌀차관 첫 육로수송 개시(7.20)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합의한 쌀 40만톤 차관 제공 계획에 따라 국내산 쌀 10만톤을 1995년 대북 쌀 지원이후 최초로 육로를 통해 수송(외국산 쌀 30만톤은 해로로 수송)
 - 차관금액 : 톤당 300달러, 이자율 : 연 1%, 상환방법 :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동남아 체류 북한이탈주민 대규모 입국(7.27~28)

-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던 북한이탈주민 468명이 2차에 걸쳐 입국

- 북한은 8·15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7.24~26)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7.29)을 통해 강한 불만 제기
- 북한이탈주민은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 2004년 6월 760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무산

- 8월 3~6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한의 회담개최 협의 불응으로 무산
- 북한은 민간단체의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방북 불허와 북한이탈주민의 대거 입국 허용에 대해 불만 표시

■ 북한, '민경련'을 '민족경제협력위원회'로 확대 개편

- 북한의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로 확대 개편
- 무역성 산하 기구에서 내각 직속으로, 위원장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권한이 강화

■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에 임명(8.12)

-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축으로 하여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괄

■ 남한 기업의 북한 업체 미결제 대금 1백만 달러 규모(8.12)

- 정부 관계자는 남한 10여개 업체가 수년 동안 북한 개선무역총회사 등을 통해 물품 구입 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약 1백만 달러라고 언급(문화일보)
- 해당 업체들은 당초 계약과 달리 북한에서 구매한 물품의 품질이 불량해 클레임을 제기한 상태라고 주장
- 북한은 피해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남한 업체의 대금 미결제에 강한 불만 제기

■ 노무현 대통령,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 추진 강조(8.15)

- 노무현 대통령은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
- 이를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결단을 촉구

■ 정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출범준비팀' 구성(8.16)

- 정부는 통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출범준비팀'을 구성하고 공단개발 운영대책,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입주기업 지원대책, 기반시설 공사계획, 지원단 설립 준비 등에 착수

■ 북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발표(8.25)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월 29일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채택하였다고 발표(조선중앙통신)
- 부동산의 취득, 분양, 매매, 양도, 증여, 상속, 저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
- ※ 지금까지 발표된 개성공업지구 운영 관련 규정
개발규정(2003. 4. 24), 기업창설·운영규정(2003. 4. 24), 세금규정(2003. 9. 18), 노동규정(2003. 9. 18),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2003. 12. 11), 출입, 체류, 거주규정(2003. 12. 11), 세관규정(2003. 12. 11), 외화관리규정(2004. 2. 25), 광고규정(2004. 2. 25)

■ 북한, 상반기 대중 교역 37.0% 증가, 대일 교역 10.0% 감소

- 올해 상반기중 북한의 대중 교역액은 518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7.0% 증가
- 대중 수출은 172백만 달러(59.5% 증가), 수입은 346백만 달러(28.0% 증가)
- 통일부는 중국의 건설 원자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철강(선철·고철) 등 원자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에너지, 소비재, 생필품 등의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대일 교역액은 121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
- 대일 수출은 82백만 달러(7.0% 감소), 수입은 39백만 달러(16.0% 감소)
- 통일부는 북·일 관계 악화 지속으로 교역액이 감소했고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일부 계층의 소비성향 고급화 추세로 일반승용차·담배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고 분석

■ 북한-EU, '경제개혁 및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8.31~9.4)

- 북한과 EU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EU·나우만 재단 및 북한 외무성 공동 주최로 평양에서 '북한-EU 경제개혁 및 협력강화' 워크숍을 개최

- EU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이행과정과 아시아국가의 경제개혁 과정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소개하고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설명

■ 북한, 평양시장에 ‘도매반’ 설치·운영(9.7)

- 올해 4월부터 평양 통일시장에 ‘도매반’이 설치되어 국영기업소 및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정가격 이하로 구입하여 판매(조선신보)
- ‘도매반’ 설치는 대중 소비품을 일괄 구입, 시장상점에 염가로 공급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매반’ 운영이 성공을 거둘 경우 ‘도매시장’으로 확대할 계획
- 북한은 쌀가격이 1킬로당 240원(3월 고시가격, 1.60달러)에서 500원(3.33달러)으로 급등(8.13, 세계식량계획)하는 등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인플레이가 심화
- 북한 공식 환율은 1유로에 160원이나 비공식적으로는 2천원

■ 정부, 개성공단 건설 등에 남북협력기금 1,348억원 지원 결정(9.8)

- 정부는 9월 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 4개 사업에 대해 1,348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의결
-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 : 1,095억원(올해 470억원)
- 금강산 관광 도로포장 지원 : 27억원
- 아테네 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경비 지원 : 69백만원
- 개성공단 관리기관 청사건립 및 운영비 대출 : 225억원(올해 46억원)
 - 이자율 : 연 1%, 상환방법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정부, 개성공단 시범단지 11개 입주기업 협력사업 승인(9.8, 9.17)

-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선정기업 15개 기업 중 전략물자 심사를 통과한 11개 기업에 대해 우선 협력사업을 승인
- 문창기업(주)(봉제의복), (주)태성산업(플라스틱부품제조), 삼덕통상(주)(신발제조), (주)대화연료펌프(자동차연료부품), (주)용인전자(전자부품), (주)매직마이크로(전자부품·영상장비), 부천공업(주)(전기공급·제어장치), (주)에스제이테크(플라스틱제품), (주)호산에이스(일반기계제조), (주)신원(봉제의복), (주)리빙아트(기타금속제조)
- 11개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462억원, 분양면적은 19,882평

■ 우리은행, 개성공단 진출은행으로 선정(9.8)

-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는 우리은행을 개성공단 시범단지 진출은행으로 선정
- 우리은행은 공단 입주 기업과 남한 인원에 대한 송금, 환전, 계좌관리 업무 등을 수행

■ 정부, 개성공단 셔틀버스 운행 승인(9.9)

- 정부는 현대아산이 신청한 개성공단~서울간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수송장비(자동차) 수시 운행 승인
- 9월 20일부터 월~금요일, 하루 왕복 2회 시범운행

■ 정부, 남북교역 손실보조약정 첫 체결(9.9)

- 정부는 북한과 의류 위탁가공사업을 하는 (주)무한섬유의 반입 손실보조 약정을 승인
- 손실보조 비율은 순손실액의 50%

■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 시행(9.23)

-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는 대북 투자사업자가 북한당국의 수용, 송금제한, 당국간 불이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비상위험)로 인한 사업불능 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대북위험 경감제도
- 손실보조범위 : 약정한도내 순손실액의 70%(개성공단 지역은 90%)
- 약정한도 : 기업당 최대 20억원, 약정기간 : 최장 10년

※ 남북교역 손실보조제도는 5월 14일부터 시행

■ 미국 상원, 북한인권법 통과(9.28)

- 북한 인권문제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7월 21일 미국 하원 통과에 이어 9월 28일 상원에서 통과
- 법원이 상원에서 수정의결되어 하원에 재상정되었으며 하원표결 및 대통령 서명후 발효